**부활 제5주일(2018년 4월 29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요즘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참 이쁩니다. 꽃이 새롭게 피고 있고, 나무에서는 새순이 돋아납니다. 겨우내 죽어 있었던 들판에 새생명이 자라나고, 산과 들은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 참 이쁘죠. 가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사십니까? 가끔 시간 내서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파란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주변을 둘러 볼 여유를 좀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가끔 집에 화단이나 정원 가꾸시는 분들 계시죠. 화초도 심고, 야채도 심고 그럽니다. 죽은 가지나 말라비틀어진 가지는 쳐내고, 새로 돋아나는 가지가 잘 자라도록 합니다.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는 새생명을 받죠. 오늘 복음 말씀처럼, 죽고 말라비틀어져서 잘라져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질 신세가 안되려면, 단단히 나무에 붙어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내리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은 “나는 참포도나무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포도나무입니다. ‘참’이라고 붙였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죠,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럼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요? 여기서는 가짜 메시아, 가짜 예언자, 가짜 율법 학자들, 가짜 종교인들을 빚대어서, 자신은 참된 메시아요, 참된 예언자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참포도나무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농부들에게 포도나무는 가장 확실한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함께. 그래서,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수확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수확 때, 어떤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가 아닌 신맛이 나는 들포도를 내곤 했는데, 이런 경우 실망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당시의 이런 생활 환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포도나무는 아주 맛있고, 달고, 좋은 포도를 냅니다. 그런데, 종자가 별로 좋지 못한 포도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진짜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참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착한 목자와 양떼’로 비유하신 대목 기억하시죠. 당시의 목자와 양들과의 아주 찐한 관계를 그렇게 묘사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를 참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는 겁니다. 잘 붙어있는 가지들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그렇지않고 떨어져 있으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려서, 잘라져 버릴 것입니다.
        ‘머루르다’는 표현, ‘붙어있다’는 표현, 그래서 머무르고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표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잘 붙어 있으면, 또 교회 공동체에 잘 머무르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져 나갈 신세가 될거라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을 원하십니까? 잘려져 나가서 버려질 운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든지 꼭 붙어서, 생명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운명을 원하십니까?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툭하면 삐쳐서 성당 안나오십니다. 누가 꼴보기 싫어서... 누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들어서... 아무도 날 제대로 대접 안해줘서... 누가 잘난 척 하는 거 보기 짜증나서... 등등...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성당 나가나 봐라!”

        그런데 성당 안나오시면, 누가 손해보는 거죠? 네. 나만 손해입니다. “나 안나가면, 그 성당 잘 되나 어디 두고 보자!” 네. 나 안나가도 성당은 잘 됩니다. 성당 안 오면 누구 손해? 네, 나만 손해입니다. 신앙 생활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 때문에 하고 안하고, 또 누구 때문에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당에 엉뚱한 이유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당에 오시는 이유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앙 생활은 남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진짜로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런 운명을 갖고 싶으시다면, 남 상관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원히 행복하실 겁니다. 그건 성당 열심히 나오시라고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깨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세요. 나무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있듯이. 떨어져버린 나뭇가지는 말라버리고, 잘려져 나갑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들한테 붙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붙으세요.

        성당에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딜 가나 성당에는 파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어느 본당에 가든지 비슷합니다. 패거리들이 너무 많아. 무슨 조폭도 아니고. 주임 신부님파, 보좌 신부님파, 부제파, 큰 수녀파, 간 수녀파, 올 수녀파, 제의방 수녀파, 떠난 신부파, 올 신부파, 회장파, 부회장파, 총무파, 하다못해 양파, 쪽파까지. 한국 천주교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파라고 합니다. 이 파때문에 성당이 발전을 못한답니다.

        모임에 가면 꼭 다른 파나 다른 사람 험담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도 파가 다르면, 항상 까탈스럽게 굽니다. 파가 다르면 도와주기는 커녕 망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당도 파가 있죠? 없습니까? 네. 우리 성당에는 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파만 있습니다. 이 파 저 파, 기웃거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만 꼭 매달려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